투어 번호
LKJB9RQ38J

어드벤트 실론 (13일)

13일 · 12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3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전담 운전 가이드가 운전하며 스리랑카의 서쪽 해안에서 문화삼각지대로, 산악 지역을 거쳐 남부 야생동물 공원과 열대우림을 지나 남해안 해변까지 이어집니다. 네고롐보에서 시작하여 아누라다푸라, 아붓가나, 담불라, 시기리야, 폴론나루와를 거치며 고대 수도, 동굴 사원, 왕실 유적지를 통해 수백 년의 스리랑카 역사를 탐방합니다.

문화삼각지대에서 출발한 루트는 캔디와 누와라엘리야로 올라가며 차 재배 지역, 식민지 시대 도시 풍경과 치아 사원을 둘러본 후, 엘라의 언덕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의 야생동물과 신하라자 열대우림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며칠은 벤토타 주변 남서쪽 해안에서 보내며 갈레 요새와 마두 강을 방문한 후, 공항으로 향하며 콜롬보를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여행자들은 이 한 번의 여행으로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고고학적 유적지, 산악 지역 풍경, 국립공원 사파리, 열대우림 산책, 거북이 부화장, 역사 깊은 요새 도시, 그리고 개방된 해변 시간을 모두 도로 이동으로 연결되어 지역 간 별도 교통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서부 해안의 네곰보 해변에서 시작되며, 여유롭게 여독을 풀고 현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오랜 전통을 이어온 현지 어업 활동을 구경해 보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수상 스포츠

산호와 수중 생물을 볼 수 있는 다이빙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해안 바로 앞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있어 지금은 여러 어종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판두와스누와라 → 아누라다푸라

이날은 내륙으로 이동하여 두 곳의 옛 수도를 둘러보며, 잘 알려지지 않은 12세기 왕국부터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에 이르는 스리랑카 왕조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판두와스누와라

짧은 기간 수도로 번영했던 12세기 유적지를 둘러보세요. 파고다, 불상당, 회의장, 성채와 더불어 성벽 바로 바깥에 복원된 불치사와 옛 왕궁 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L Manju · CC BY-SA 4.0



아누라다푸라

천 년 넘게 수도 역할을 했던 폐허 도시를 거닐며 제타와나라마 다고바, 스리 마하 보디,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 그리고 루완웰리사야와 투파라마야 기념물을 둘러보세요.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3 아누라다푸라 → 아우카나 → 담불라

이날의 여정은 유명한 입불상을 지나 담불라 석굴 사원으로 이어집니다.



아우카나 불상

하나의 바위를 통째로 깎아 만든 12미터(40피트) 높이의 입불상을 만나보세요. 뒷부분의 얇은 지지대 하나로만 지탱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과거 불상당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일부 무너진 구조물도 남아 있습니다.

Carlos Delgado · CC BY-SA 4.0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에 들어가 부처의 생애를 담은 고대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을 감상하세요. 신성한 왕의 동굴과 위대한 왕의 동굴이 포함되며, 근처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4 담불라 →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담불라

이날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유적지 두 곳, 시기리야 바위 요새와 옛 수도 폴론나루와를 둘러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이 세운 5세기 바위 요새를 올라보세요.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지나 유명한 벽화를 감상하고, 계단식 정원과 옛 저수조를 지나 정상의 궁전 유적까지 올라갑니다.

Wrobell · CC BY-SA 3.0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의 유적을 거닐어 보세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연관된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5 담불라 → 마탈레 → 캔디

이날은 마탈레의 향신료 산지를 지나 캔디로 이동하여 향신료 정원, 불치사, 그리고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합니다.



향신료 및 허브 정원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및 허브 정원을 방문해 스리랑카의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활용에 대해 배워보세요. 열대 기후 덕분에 식물들이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불치사

16세기에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해 화려하게 채색된 홀과 조각된 기둥을 감상하세요.

A.Savin · FAL



캔디 문화 공연

불의 춤, 칼춤, 캔디안 드러머들의 공연을 포함한 한 시간 분량의 전통 스리랑카 무용과 음악 공연을 관람하세요.

Arian Zwegers · CC BY 2.0

Day 6 캔디 → 누와라엘리야

길은 차밭 지대를 지나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의 휴양 도시였던 누와라엘리야로 이어집니다.

차 공장과 농장

현재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실론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보세요. 1850년대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근처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상업적 차 재배를 처음 시작한 데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누와라엘리야

작은 오두막과 오래된 저택들이 늘어선 이 옛 영국 휴양 도시의 거리를 걸어보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우체국을 방문하며, 빅토리아 여왕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 주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7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우다왈라웨

여정은 엘라의 언덕 풍경을 지나 남쪽의 우다왈라웨로 계속됩니다.



엘라

차밭과 바위투성이 지형을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의 전망을 감상하고, 나인 아치 브리지를 걸어서 건넌 뒤, 독특한 루프형 철로가 있는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8 우다왈라웨

이날은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데 하루 전체를 할애합니다.



우다왈라웨 국립공원

1970년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조성된 이 공원의 습지, 숲, 초원을 가로지르는 세 시간짜리 사파리를 떠나보세요. 수생 조류와 스리랑카 코끼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파충류, 나비로 유명합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9 우다왈라웨 → 신하라자 → 벤토타

이날의 여정은 스리랑카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열대우림을 지나 남서부 해안의 벤토타에 이르며, 가는 길에 거북 부화장에 들릅니다.



신하라자 삼림보호구역

울창한 상록수림과 원숭이, 화려한 색깔의 새들이 서식하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열대우림을 걸으며 정글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운이 좋으면 나뭇잎 사이에서 초록색 살무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Dan Lundberg · CC BY-SA 2.0



코스고다 거북 부화장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종과 부화장의 보존 프로그램에 대해 배워보세요. 새끼 거북과 보호 중인 다친 성체 거북을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0 벤토타

스리랑카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는 하루입니다.



벤토타 해변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며 일몰을 감상하고, 알을 낳기 위해 해안으로 올라오는 거북을 관찰하며, 제트스키와 윈드서핑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Vincent van Zeijst · CC BY-SA 3.0

Day 11 벤토타 → 갈 → 발라피티야 → 벤토타

이날은 역사적인 요새 도시 갈과 마두강 보트 투어를 함께 즐긴 뒤 벤토타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세운 요새를 둘러보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 박물관과 등대,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이 깔린 거리가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마두강 보트 투어

맹그로브로 둘러싸인 마두강의 수로를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를 수확하는 작은 섬을 방문하며, 피시 마사지도 체험해보세요.

SUPindia · CC BY-SA 4.0

Day 12 벤토타 → 콜롬보

투어의 마지막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수도 콜롬보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 페이스 호텔, 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하고, 인디펜던스 스퀘어나 레이스 코스 주변에서 쇼핑을 즐길 시간도 가져보세요.

Gihanud2001 · CC0

Day 13 콜롬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여 공항으로 이동해 출국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